



부산시립무용단
PUSAN MUNICIPAL DANCE TROUPE

Spring Breaks Dance Festival

봄 겨우씨

- 22(화) ▶ “삶의 저쪽”
• 안무·구성 / 서숙자
- 23(수) ▶ “어미와 참꽃”
• 안무 / 이송희, 서순덕, 최천열
- 23(수) ▶ “유채색으로 빛어진 빗살무늬”
• 안무 / 홍기래, 장래훈, 이윤혜

'94.3.22(화) ▶ 23(수) 19 : 30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PUSAN CULTURAL CENTER MEDIUM HALL

삶의 저쪽 3.22(화)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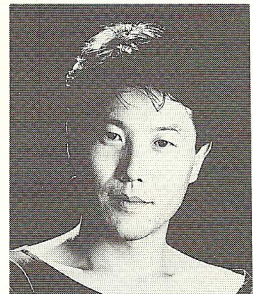
구성안무/서 숙 자
(시립무용단 안무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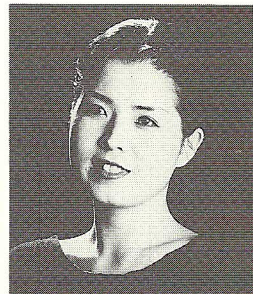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의 삶의 상황은 물질 문명의 풍부, 생활의 편리함을 얻기는 했지만 그 결과 인간성의 상실, 환경 공해, 인격과 생명의 경시풍조와, 단순원인의 범죄, 감각적 쾌락, 맹목적 사랑이 막연히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지향점 없이 흐르고 있다.

또한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호흡하고, 환경의 리듬이 이상변화를 일으켜 생태계의 변이와 산성비, 폐놀 사건 등 죽음의 고통속에 놓여 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 내려면 욕망에서 자유로워 지면서 죽음이란 고통을 넘어서서 영원한 환희, 행복한 삶, 깨어있는 삶의 추구를 위해 윤리적, 철학적, 정신적, 종교적, 예술적 차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총무/이 성 원



서 정 숙

● 구 성 / 전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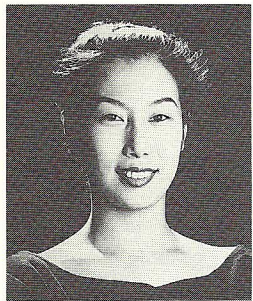
I 장 : 상실과 변이

II 장 : 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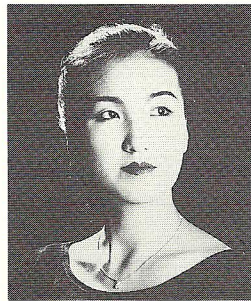
III 장 : 깨어있는 삶

● 연출/송광진 ● 의상/이수동 ● 무대미술/김광호
● 출연/서숙자와22명 ● 객원출연/최병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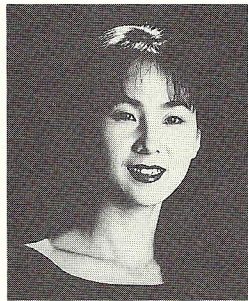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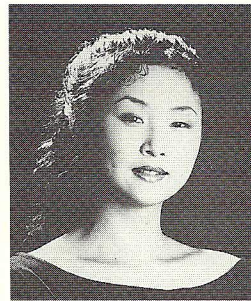
강 미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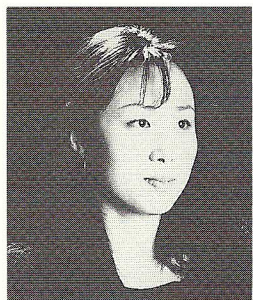
박 미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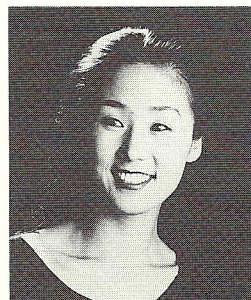
전 유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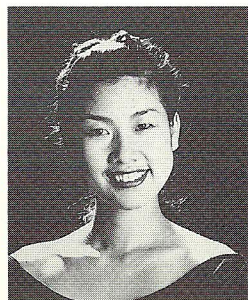
임 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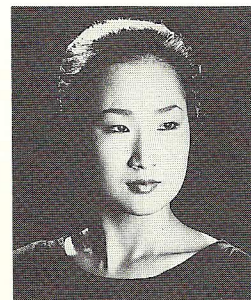
박 선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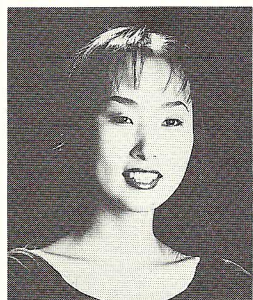
박 정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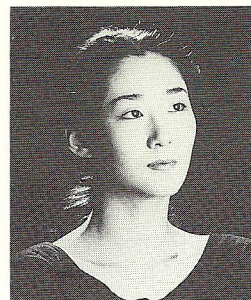
김 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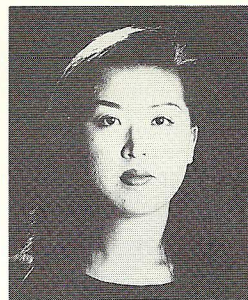
허 복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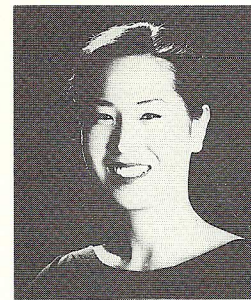
최 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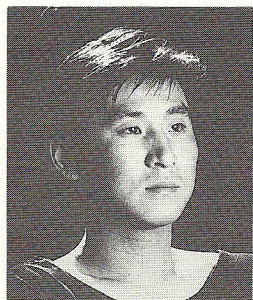
심 재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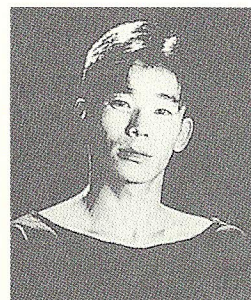
황 보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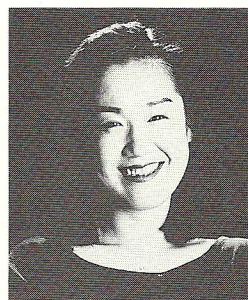
이 지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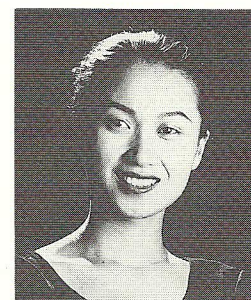
성 동 현



류 민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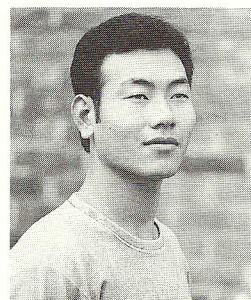
이 정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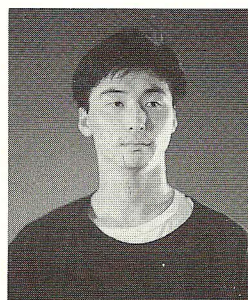
박 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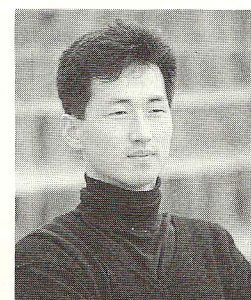
권 봉 정



이 정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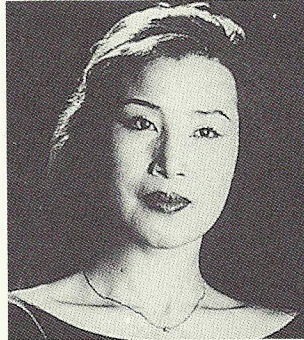


김 병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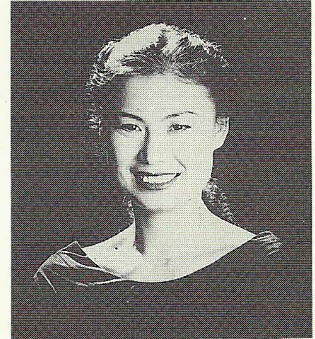


최 병 제(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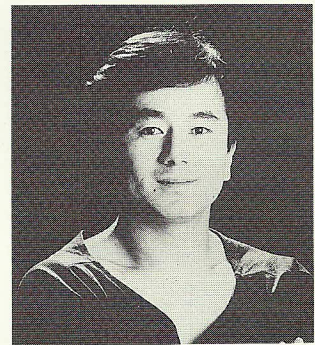
어미와 참꽃 3.23(수) 19:30



안무 / 이송희



안무 / 서순덕



안무 / 최찬열



● 구 성 / 전 3장

I 장 : 애도

평화스럽고, 애잔한 분위기의 여성 군무

II 장 :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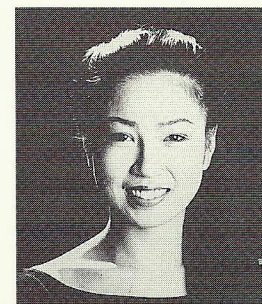
여성과 남성이라는 상징적 대립축의 군무
역동, 갈등, 억압의 집단적 군무

III 장 : 죽음과 해방

쓰러짐과 일어섬의 반복된 과정을 거쳐,
집단적 한풀이에 다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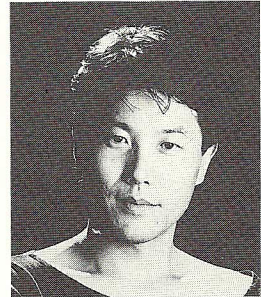
스텝 / 이 현 숙



스텝 / 장 해 정

- 대본/이송희, 최찬열 ● 무대미술/백철호 ● 의상/김성만
- 출연/이송희, 서순덕, 최찬열, 서현미, 장은미, 오숙례, 김향숙,
이성원, 김주영, 성동현, 류민관, 김미리
- 음악편집/에그린 레코드 ● 스텝/장해정, 이현숙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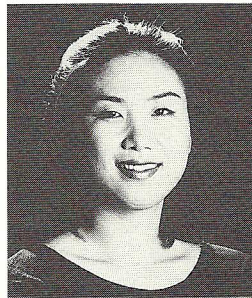


총무/이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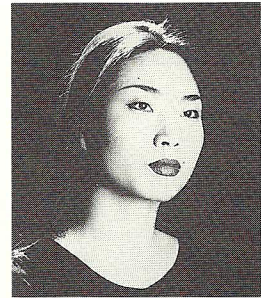
우리들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어머니부터, 오늘의 누이동생에 이르기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한과 포용과 저항의 정서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무대화한다.

“진주검무”의 춤언어를 차용하여 저항과 한의 정서를 표출하고, 이동안 선생의 “신칼대신무”를 포용과 해방의 춤언어로 재구성하여 집단적 한 풀이에 이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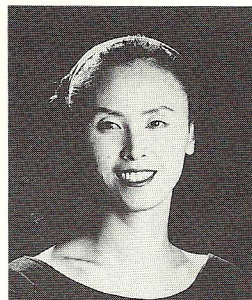
여기에 역사적 또는 현실의 여성 억압적 사실들이 덧붙여 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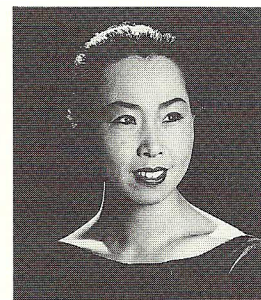
서현미



장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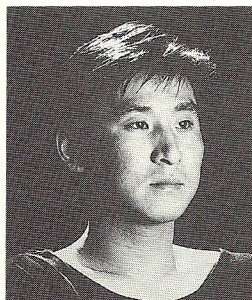
김향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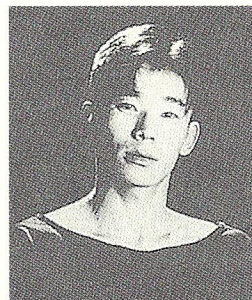
오숙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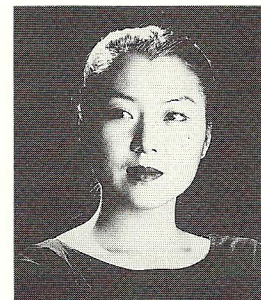
김주영



성동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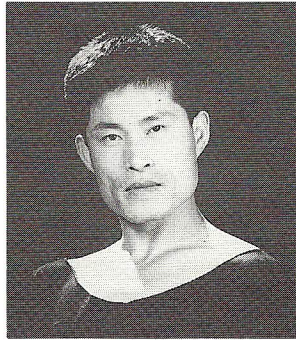


류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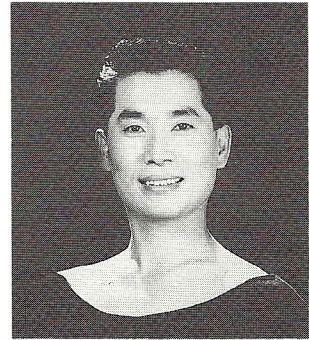


김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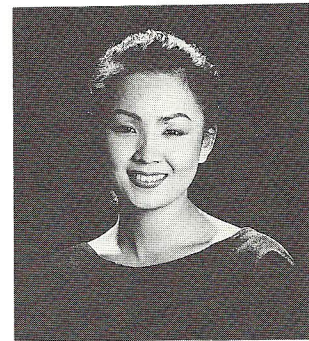
유채색으로 빛어진 빗살무늬 3.23(수) 19:30



안무 / 흥기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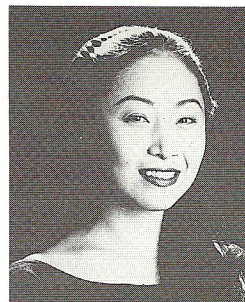
안무 / 장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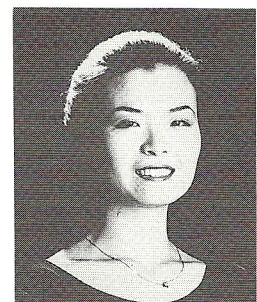
안무 / 이윤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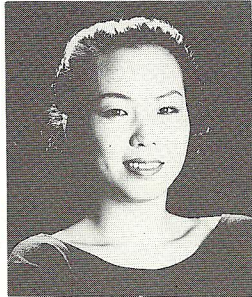
- 무대미술/손을수 ● 의상/김성만
- 출연/흥기태, 장래훈, 이윤혜, 강휘지, 황선희, 송현주, 김호선
- 음악편집/에그린 레코드 ● 스태프/정진희, 원유화



스텝 / 정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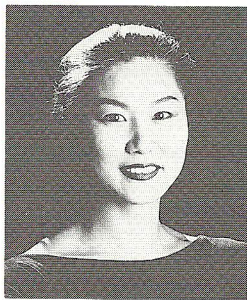


스텝 / 원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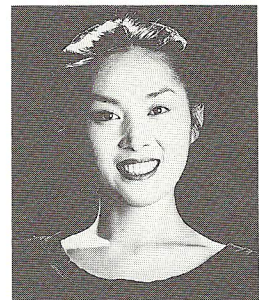


강 휘 지

섬세한 고풍이 조각되어져
 구수한 흥내음과 또는 그 속
 에서 신의 호흡을 느끼며 고
 요한 성정속에서 하나하나
 잉태되어져 자연의 유약을
 머금은 채 정성스레 장작가
 마 속에 차곡차곡 모셔지면
 혼신의 땀이 배이고 열심을
 모아 지핀 고온의 불꽃과 더
 불어 밤낮을 화염삼매로 녹
 아들면 향아리는 어느듯 옛
 정취로 미소를 짓는다.



황 선 희



송 현 주



김 효 선